

# 걸핏하면 흥분하는 반려견, 이렇게 교육하세요



개들은 견종마다 개체마다 그리고 나이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일부 반려견들은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내뿜기도 한다. 따라서 반려견에게 스스로 차분해지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교육이다.

**■ 초인종, 청소기, 믹서기 등의 소리에 흥분하는 경우**  
일부 소리에 자극이 되어 흥분하는 반려견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앉아' 나 '엎드려' 혹은 매트로 가는 행동을 가르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기본 행동(default behavior)이라고 한다. 평소애 안정적인 기본 행동을 잘 가르치고 점차적으로 자극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도 강화한다면, 결국은 이전에 흥분하던 상황을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앉은 기본 행동을 가르치려면 콩알 정도 크기의 간식을 주머니, 트리트 파우치 그리고 집 등 여러 곳에 준비해 둔다. 그리고 반려견이 스스로 앉은 기본 행동을 할 때 준비한 보상을 전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려견이 보호자의 신호를 받고 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앉을 때 보상을 주는 것이다. 앉은 행동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반려견의 앉는 횟수가 매우 많아질 것이다. 그때부터 불규칙적으로 보상을 주고, 앉는 것이 기본 행동으로 잘 잡혔다는 확신이 들면 보상을 쓰다듬는 것이나 장난감 등으로 바꿔줄 수 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제 거의 기본 행동이 된 것이다. 이제는 기존에 반려견이 싫어하거나 흥분했던 소리와 상황을 점차적으로 추가하여 앉은 행동을 이끌어 본다.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앉아' 를 기본 행동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앉은 상태에서는 다른 흥분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을 상반행동이라고도 하는데, 앉은 행동은 흥분한 상태에서 취할 수 없는 행동이고 반려견을 진정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 흥분하면 주인에게도 잘 오지 않는 경우**  
반려견을 나에게 오게 하여 쉬는 시간을 갖게 해 주는 것은 흥분 상태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흥분 상태에

서 차분해지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리콜 교육 ('이리와' 교육)을 하면서 보호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반려견이 원하는 행동을 가로막는 것이다. 반려견에게 리콜 교육을 시작할 때 잘 안 된다면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반려견에게 원하는 행동을 반려견 스스로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반려견 입장에서 보호자에게 가는 것이 놀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호자에게 간다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연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100% 완벽한 리콜이 집 안에서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조용한 야외 환경에서 연습해 본다. 같은 방식으로 방해 요소를 늘려가면서 교육을 한다면, 차차 누가 봐도 능숙한 슈퍼 리콜 반려견이 될 것이다.

**■ 또 다른 방법**  
반려견을 차분하게 교육하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교육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리이다. 반려견이 실수할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잘못된 행동하지 않도록 먼저 관리해 준다면 모든 것이 훨씬 쉬워진다. 누군가 집에 방문한다면 반려견을 미리 다른 방에서 쉬게 하거나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넣은 장난감을 방 안에 함께 넣어주는 방법도 매우 좋다.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 는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위에 기본 행동으로 '앉아' 와 쉬는 시간을 주기 위한 '이리와' 를 교육하는 것 못지않게 주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반려견이 배울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트레이닝 용어로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화시키지 않기' 나 '무시하기' 라고 한다. 그런데도 반려견이 잘못된 행동을 배우도록 보호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반려견이 무언가를 물고 도망가면 쫓아가서 그 물건을 뺏어 오는 것, 반려견이 뛰어오르면 예쁘다고 관심을 주는 것, 식사 시간에 반려견이 다가와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 음식을 주는 것 등이다. 그리고 반려견이 흥분하면 보호자도 반려견을 향해 소리지르고, 밀거나 누르며 조용히시키기 위해 힘을 쓰기는 등 흥분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그렇다면 이전 조금 다른 시도를 해야 한다. 반려견의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반려견이 날뛰다면 그냥 반려견을 지나쳐 들어간다. 또 사람을 향해 뛰어오른다면 반려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으며 만지거나 건드리지도 않고 고개와 몸을 돌리고 차분히 기다린다. 반려견이 뛰는 것을 멈추고 앉으면(기본 행동을 하면) 반려견이 좋아하는 트릿을 준다. 머지않아 반려견의 흥분이 사라지고 기본 행동이 형성될 것이다.

# 반려견이 좋아하는 놀이



**■ 공놀이**  
주인이 공을 던지면 강아지가 물어오게 하는 단순한 이 놀이는 반려견의 근력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공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프리스비**  
일명 원반던지기 놀이로 주인이 던진 원반을 애견이 공중에 뛰어올라 받아오는 놀이이다. 프리스비를 하기 위해서는 개에게 주력과 점프력, 물건을 갖고자하는 소유욕이 있어야 한다.

**■ 치실토이**  
치실토이는 이가 자라는 어린 강아지부터 성견까지 씹고 뜯으며 놀 수 있는 장난감이다. 끈과 고무공 등을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실외에서 할 경우 나무 기둥에 치실토이를 묶어 놓으면 반려견 혼자 물어 뜯으며 신나게 놀 수 있다.

**■ 노즈워크**  
사람보다 100만 배 정도 발달한 개의 후각을 이용해 종이나 천속에 숨겨진 간식을 찾는 놀이이다. 노즈워크는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 어질리티**  
의자와 쿠션 등의 물건과 간식을 이용해 장애물 코스를 만든 후 강아지가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반려견의 흥미 유발뿐만 아니라 민첩성과 유연성도 길러줄 수 있다.

# "과도한 빗,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신에 맞는 용자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김주용 (Jay Kim)**

중앙일보 주택용자 강의  
Passkey MLO Review 공동저서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SNA Financial (dba Lending Plus)  
kimjy9855@gmail.com

NMLS#1560314

- 1. 일반 주택용자
- 2. 재용자: Cash out 재용자, 이자율/기간 조정 재용자
- 3. 정부 주택용자: FHA, VA 용자, 리버스 모기지 등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문의도 환영합니다**

**213.332.1718**

3450 Wilshire Blvd, Suite 310  
Los Angeles, CA 90010